

남북한 국어정보화 표준화를 위한 과제

-한글 자모순-

홍윤표(단국대)

1. 서론

남한과 북한 사이의 언어차이가 아무리 심하다 해도 남북한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전면적으로 방해하지는 못한다. 남북한의 언어 규범에 차이가 심하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국어 정보처리의 방법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비록 정보전달 매체로서 동일한 언어인 한국어와 동일한 문자인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산망을 통한 남북간의 직접적인 정보교환은 전면적으로 차단된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에 그것이 실현된다고 해도, 현재의 정보처리 방법의 차이가 지속되는 한 전산망을 통한 정보교환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한글코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한간의 국어 정보화 실현 방법의 통합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욱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다. 특히 한글 자모의 배열 순서는 한글 코드의 전제가 되는 것이어서, 자모 배열순서의 표준화는 컴퓨터의 자판이나 용어 등의 표준화보다도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 남한과 북한은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해 온 언어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남한과 북한은 동일한 문자인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한글의 운용방식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 ① 문자의 명칭
- ② 자모 배열 순서
- ③ 자모의 명칭
- ④ 자모의 모양(자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국제표준기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통일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2. 문자의 명칭

한국어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주민 이외에 전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는 동포들과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

지 역	인어명칭	글자명칭
남한	한국어	한글
북한	조선어	조선글
중국	조선어	조선글
중앙아시아	고려어	고려글
일본	조선어(한국어)	조선글(한글)
미주	한국어	한글
유럽	한국어	한글
중남미	한국어	한글
아프리카	한국어	한글
중동	한국어	한글
아시아	한국어	한글

우리나라 문자에 대한 통칭인 '한글'은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명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한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한글'이 '한국의 글'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글'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글', '하나뿐인 글', '큰 글'이란 뜻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대한민국'의 준말이 아

나라는 데에 있다. ‘한국’이란 단어는 중국에 ‘중국’이란 국호를 가진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란 단어가 통칭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통칭하는 단어였었다. 즉 ‘한국’은 중국에서 ‘삼한국’의 약자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三國志 魏志 東夷傳은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自言古之亡人避秦役 來適韓國……其言語不與馬韓同”이란 기록이 있다. 따라서 한국을 대한민국의 약자로서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즉 2001년 2월 24일에 남북한의 학자들과 중국의 우리 동포학자들이 모여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국제표준기구에 남북이 공동으로 등록할 경우에 ‘정음’으로 하자는 안을 합의한 적이 있다. 즉 “ISO 등 국제기구에 등록하기 위한 글자의 명칭은 정음(Jeongeum)으로 한다”고 하고 자모순도 별도로 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잠정적이다. ‘정음’은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이어서 ‘정음글’로 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만만치 않았었는데, 우선 남과 북이 주장하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명칭을 선택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자모의 명칭

자모의 명칭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남과 북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남과 북의 차이가 있다면 북은 모든 자음의 명칭을 단일화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즉 ‘ㄱ’을 ‘기옥’, ‘ㄷ’을 ‘디옥’, ‘ㅅ’을 ‘시옥’으로 통일하였다. 사실 오늘날 ‘ㄱ’을 ‘기역’, ‘ㄷ’을 ‘디귤’, ‘ㅅ’을 ‘시옷’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훈몽자회』에 ‘ㄱ’을 ‘其役’으로, ‘ㄷ’을 ‘池末’로 써 놓고 ‘ㅅ’을 동그라미 안에 넣어 표시하였고(이것은 훈으로 읽지 말고 釋으로 읽으라는 뜻이다), ‘ㅅ’을 ‘時衣’로 표기해 놓고 역시 ‘衣’를 동그라미로 표기하였다. 이것도 역시 음으로 읽지 말고 釋으로 읽으라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자로는 ‘옥, 은, 옷’을 표기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자의 명칭을 모두 일정한 규칙으로 통일시키자는 주장은 남한 학자들 중에서도 동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북한의 안에 따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자모의 모양(자형)

남과 북의 자모 중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ㅈ’ ‘ㅊ’ ‘ㅌ’ 등이다. 남에서는 ‘ㅈ’은 표준자형을 3획으로 정하였고, ‘ㅌ’도 ‘ㄷ’의 가운데에 가획한 것으로 표준을 삼고 있다. 물론 남한에서도 이 표준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이들의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ㅌ’ 글자는 ‘ㄷ’의 위에 세로로 내려 그은 글자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므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문자 만드는 원리에 따르면 큰 무리가 없이 통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표준을 정하는 것은 문자생활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마치 표준어를 정해 놓고 실제로는 각 지역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특히 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는 않다.

5. 자모의 배열순서

(1) 자모 배열순서의 배경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자모의 배열순서이다.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모의 배열순서가 오늘날과 같이 배열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을 당시에 훈민정음 자모의 배열순서는 오늘날과는 차이가 많았다. 훈민정음 주해본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초성 : ㄱ (ㄱ) ㅋ (ㄱ) ㆁ (ㄱ) ㄷ (ㄷ) ㄴ (ㄴ) ㅂ (ㅂ) ㅍ (ㅍ) ㅈ (ㅈ) ㅊ (ㅈ) ㅅ (ㅅ) ㅆ (ㅅ) ㅇ (ㅇ) ㅎ (ㅎ) ○ ㄹ △ ㅊ ㅈ ㅅ ㅆ

(17자 + (6자) + 10자 = 33자)

중성 : ㆍ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ㅋ (11자)

즉 초성자는 牙解脣齒喉의 순서를 따르되 이체자와 정치음과 치두음을 뒤에 놓았다. 그리고 중성자는

天地人 삼재의 기본이 되는 글자를 먼저 놓고 初出字를 앞에 그리고 再出字를 뒤에 놓았다. 모음 11자는 기본자를 근간으로 하여 음양의 대립으로 배합하여 전개시킨 것으로, 모음의 기본요소로서 체계화한 것이다.

『훈민정음』에서 설명한 자모의 배열순서는 최세진이 편찬한 『訓蒙字會』(1527년)의 범례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다음에 『訓蒙字會』의 범례에 나오는 자모의 배열순서를 보이도록 한다.

초성 : ㄱ ㄴ ㄷ ㄹ ㄲ ㅋ ㆁ ㆆ ㆅ ㆆ ㆇ ㆈ ㆉ ㆊ (16자)

중성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이 『訓蒙字會』의 자모 배열순서는 오늘날의 자모배열순서의 시초가 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 배열순서의 특징은 초성에서 먼저 초성과 중성에 통용되었던 8자를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 초성에만 사용되었던 8자를 배열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초성에만 쓰이었던 8자도 ㄱ音(ㄱ), ㆁ音(ㄴ ㄷ ㄹ), ㆅ音(ㄲ ㅋ), ㆆ音(ㆁ) ㆇ音(ㆆ)의 순으로 배열하였고, 그리고 동일한 글자도 가획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역시 初聲獨用八字도 역시 마찬가지로 ㄱ音(ㄱ), ㆁ音(ㆁ), ㆅ音(ㆅ), ㆆ音(ㆆ ㆇ ㆈ ㆉ ㆊ) ㆇ音(ㆇ ㆈ)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모음은 『訓民正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배열순서를 택하였는데, 이것은 기본자를 맨 뒤에 보내고 그 기본자에 가획한 방법 중 ‘ㅣ’와 ‘ㅡ’를 중심으로 하여 右→左→上→下로 ‘.’를 가획한 방법으로 배열한 것이다. 그리고 ‘ㅣ’, ‘ㅡ’에 ‘.’를 하나 가획한 것에서 둘을 가획한 방법으로 배열하였다. 그러나 이 배열순서는 최세진의 독창적인 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그 이전에도 그러한 배열순서의 단초가 보이는 것이다. 즉 이 중성의 배열은 開口度에 의한 배열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배열은 이미 『洪武正韻譯訓』의 序에 소개된 申叔舟 등의 『四聲通攷』 범례에 보이고 있다.

如中聲ㅏㅑㅓㅕㅗㅛㅜㅟㅠㅡㅢ縮口之字 則初聲所發之口不變 ㅏㅑㅓㅕㅗㅛㅜㅟㅠㅡㅢ縮口之字 則初聲所發之舌不變

즉 ‘ㅏㅑㅓㅕ’의 4자는 張口(입을 펴는)의 글자이며 ‘ㅗㅛㅜㅟ’의 4자는 는 縮口(입을 오무리는)의 글자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 한글맞춤법에 나타나는 모음의 배열순서는 개구도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오늘날 『훈몽자회』와 그 순서가 달라진 것은 자음은 ‘ㄱ’과 ‘ㆁ’인데, 이것은 오늘날 치음이 아니라 경구개음(곧 구개음)이 되어서 아설순치후음의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ㄱ’과 ‘ㆁ’을 앞에 놓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광복 이전의 이러한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즉 남한의 배열과 동일한 방법을 택하되, 단지 ‘ㅇ’은 초성에서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음과 모음의 가운데에 두게 되어서, 자음의 맨 마지막에 두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남북의 자음의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각자병서인 ㄱ, ㄴ, ㅍ, ㅈ 등도 ㅇ 의 뒤에 두었는데, 이것은 남쪽에서는 주로 자형을 중심으로 배열한 데에 비해, 북에서는 음가를 중심으로 배열하였기 때문이다. 모음자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자모 배열 순서의 규범을 살펴 보도록 한다(여기서는 우선 현대한글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남한

근거 : 한글맞춤법 제4항 [붙임 2]

① 자음

ㄱ ㄴ ㄷ ㄹ ㄲ ㅋ ㆁ ㆆ ㆅ ㆆ ㆇ ㆈ ㆉ ㆊ

②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③ 받침자모

ㄱ ㄴ ㄷ ㄹ ㄲ ㅋ ㆁ ㆆ ㆅ ㆆ ㆇ ㆈ ㆉ ㆊ

북한

근거 : 조선말규범집(1988) 맞춤법

① 자음 (19자)

ㄱ ㄴ ㄷ ㄹ ㄴ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ㅊ ㅊ ㅊ ㅊ ㅊ

② 모음 (21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ㅿ

③ 받침 자모(27자)

ㄱ ㄴ ㄷ ㄹ ㄴ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ㅊ ㅊ ㅊ ㅊ ㅊ

결국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자음글자에서는 각자병서와 받침에서의 ㅇ 자에서 차이가 있고, 모음글자에서는 남한에서는 자형의 가획 방법에 따른 자형 중심으로 배열한 데 대해, 북한에서는 기본 모음자인 10 글자를 앞에 배열하고 그 뒤에 기본 모음글자와 연관된 순서대로 뒤에 배열하였다. 즉 ㅏ와 연관된 ㅞ, ㅑ와 연관된 ㅟ, ㅓ와 연관된 ㅠ 등등으로 배열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의 양보에 의한 통합 방법과 비교 우위에 서는 각각의 장점을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통일안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장·단점의 판정 기준이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통일안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적인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만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글의 출발이 훈민정음의 창제로부터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자모의 배열 원리를 구명하는 작업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연구업적들을 종합 정리하여, 오늘날의 한글 자모배열순서의 원리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의 자모에 대해 언급하거나 연구한 역사적인 문헌들(예컨대, 『訓蒙字會』, 『三韻聲彙』, 『華東正音通釋韻考』, 『訓民正音韻解』, 『諺音捷考』, 『諺文反切表』, 『佛家日用集』 및 개화기의 수많은 교과서와 ‘국문연구소의 연구안’ 등등)을 많이 조사하여, 한글 자모 배열순서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 이것은 새로 제정할 한글 자모 배열순서의 공동안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조선말큰사전』에 등재된 한글 자모의 순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남북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몇 차례 수정된 맞춤법 규정과, 한글 자모의 배열순서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반영한 남과 북의 각종 국어사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모든 한글 자모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로 쓰여진 모든 문헌에 등장하는 한글 음절은 물론, 현대국어 정서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옛한글의 음절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이처럼 실제로 사용하였던 옛한글의 음절과 이들의 어간형을 밝히기 위한 음절들의 목록을 조사하여야 한다.

여섯째, 현대한글은 물론 옛한글의 음절들까지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배열순서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묶음별 자모순서를 연구하여 전산기 부호계에서 남북한 및 중국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모 배열순서를 도출하도록 한다.

일곱째, 이상과 같은 기초 자료 분석 등에 의하여 연구자들이 도달한 최선의 자모순 배열안을 마련한 후에는, 여러 어문 관계 기관이나 학자들 또는 언론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최종 시안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새로 제정될 시안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여덟째, 이러한 최종안을 중심으로 하여 전산기에서 현행 맞춤법 규정에 맞는 자모순으로 입출력할 수 있는 입출력 변환 프로그램을 고안 개발하도록 한다.

아홉째, 전산기 부호계 한글 자모 배열순서의 시안을 마련하고 중국측과 북한측의 관련 민간단체와 관련자료를 서로 교환 검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북한측과 교환 검토한 시안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 및 중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부호계 한글 자모순의 남북한 공동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국제표준기구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물론 국제표준기구에서 이를 허용하지는 아직 의문이다. 아마도 유니코드를 이용하는 많은 국가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 틀림없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사전 분석 조사 연구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남북 교류 최담에 제시할 최선의 안을 마련하여 남북한과 중국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자모순의 공동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일본 그리 순탄한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남과 북은 동족상잔이라는 전쟁을 치룬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처리를 우선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과 정치계는 이러한 문제로 인한 논란이 계속도리 것이며, 이러한 틈새에서 학자들도 덩달아 춤을 출 것이 거의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자모순 통일을 위한 규범화하기 위한 구조나 기구들을 살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6. 국가 규범과 연관된 남북의 연구소

(1) 남한

우선 현행 자모순이 바뀔 것이 예상되면, 우선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상당한 심의와 공청회를 거치게 된다. 지난 번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과 같은 과정을 상기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각 학자들의 의견이 집약될 것이지만, 대체로는 어느 한쪽의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 오늘날 국어학계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되면 국어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통과되면 법령으로 고시되어야 한다. 이 일은 문화부의 국어정책과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한글 코드를 담당한 분야에서 이것을 다시 유니코드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북한

북한은 남한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규범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연구 과정부터 다르다. 북한의 한글 자모를 연구할 수 있는 알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주로 어문 관련 연구진은 두 군데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김일성 종합대학교이고, 또 하나는 사회과학원이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연구기관이지만, 실제로는 敎學 중심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수는 모두 합쳐 15,000명이고(직원 포함), 15개 학부로 되어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국어학 교수가 세 분이 있다. 한 분은 지난 번 2월에 연길시에서 있었던 컴퓨터 처리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김영환 교수이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동평양시에 있는데, 1호관으로부터 4호관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1호관에서 3호관까지는 자연과학부가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5,6층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4호관이 사회과학관으로서 2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김영환 교수는 이 건물의 15층에 그 연구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대문법을 연구하는 염종률 교수가 이 대학에 있고, 소위 어음(음운론)을 연구하는 양하석 교수가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하지만, 국어학 교수는 이 세 사람뿐이다. 우리나라처럼 정년퇴임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알고 있다. 대학 내에 15개의 연구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실체는 잘 알 수가 없다.

사회과학원은 연구소이다. 모두 15개 연구소로 되어 있는데(문학연구소, 역사연구소, 통보연구소, 정보연구소, 민속연구소, 경제연구소, 철학연구소, 주체사상연구소 등), 이 중에서 주체사상연구소는 황장엽 사건 이후 주체과학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연구소 내에 규범화 사정위원회가 있다. 연구원이 모두 약 1,500명이 있다. 특히 국어학을 연구하는 곳은 언어학 연구소이다. 언어학 연구소에는 13개 연구실이 있다. '고전연구실, 문법연구실, 어휘연구실, 사전연구실, 문체론연구실, 방언연구실, 응용언어학연구실, 어음연구실' 등이 있다고 한다. 각 연구실마다 연구원이 5-6명씩 있어서 모두 70여명의 연구원이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는 '류열, 최정후, 장순

기' 교수 등이 있다(이들을 교수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모두 연세가 높는데, 모두 이 언어연구소의 소장을 지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최정후 선생은 노년 때까지도 남북한 어문회담 때에 참석하곤 하였다. 즉 로마자 통일을 하기 위한 회의와 국립국어연구원과의 회의 때에도 참석하였다. 이 사회과학원은 정년퇴임이 없다. 60세면 행정을 하지 않고 연구만 하며, 집에서 연구할 수 있다. 현재 이 언어연구소의 핵심인물은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에 늘 참석하며, 각종 국제표준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문영호' 선생이다. 김영황 교수의 제자이며, 전준기 선생이 소장을 할 때에 연구원으로 있었다. '김성근 선생, 권종성 선생도 문영호 선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제자로 가장 촉망을 받는 사람은 최병수 선생으로 알려져 있다. 권종성 선생은 언어정보 연구소의 소장을 한 적도 있다.

사회과학원 내에 있는 규범화 사정위원회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현재 심병호 선생이 비서장으로 있다. 이 위원회는 중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판공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언어학 연구소와 연계관계를 맺으면서 기초연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심병호 비서장 외에 한설희(여자, 문법연구), 방○○(동식물, 외래어 연구) 등이 있는데 모두 5-6명이 있다.

사회과학원 내에는 전자물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가 있고, 대외사업국이 있다. 대외사업국은 행정처로서 안전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과학원과는 별도의 기구로 국가규격위원회가 있다. 약 1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국가적 사령기구로서, 행정단위이다. 모든 국가의 규격을 결정하는데, 학자들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규범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기구로서, 학자들은 단지 연구결과만을 내놓을 뿐이지, 그것이 국가규격(국규)으로 선택될 것인지, 어떻게 출판될 것인지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로 보아 남한과 북한이 자모순을 통일시킨다고 해도 실제로, 이것이 남북의 표준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그 결정이 쉽다고 한다. 즉 학자들과 합의가 되면, 국가규격위원회에서 당에 보고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국가규격이 되기 때문이다.

7. 한글 자모 배열순서 차이의 문제점

한글 자모 배열순서의 차이는 실제로 남한과 북한의 언어생활에서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국어사전의 편찬에서 울림말의 순서가 달라, 서로의 사전을 참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통일이 되어서 통일된 국어사전을 편찬하게 될 때에 기존의 남한과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사전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엄청난 노력과 경비의 손실을 가져 올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점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다른 한글의 자모 배열순서를 전산기에서 사용하는 한글코드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한글코드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여야만 민족의 자존이 크게 향상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한글코드를 사용하여서 빚어지는 정보교환상의 문제점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은 물론 해외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8. 남북 중국 합의안

이러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1994년 7월과 1995년 9월, 두 번에 걸쳐 중국 연변에서 남북 및 중국 동포 학자들이 모여 의논하였던 제1차-제2차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글 자모의 배열순서를 통일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1996년 제3차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회의에서 다시 만나 통일안을 꼭 실현시키자는 데에만 합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과 북의 학자들은 통일안을 만드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 하면 몇몇 학자들이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남과 북의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서로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5년 제2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통일방안이 제시되게 되었다.

- ① 남한의 자모순으로 통일하는 방안.
- ② 북한의 자모순으로 통일하는 방안.
- ③ 남한과 북한의 자모배열순서에 차이가 나기 이전, 곧 1948년 이전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방안.
- ④ 남과 북의 학자와 어문 정책 당국자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자모 배열순서로 통일하는 방안.

이 중에서 1995년 9월에 남과 북의 학자들이 비공식회담을 통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앞에 제시한 ④에 해당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서로 논의한 한글의 자모 배열순서는 현대의 문자생활에서만 사용되는 현대한글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새로 제정할 자모 배열순서는 우리의 문자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우리 문자를 포괄하자는 것이었다. 곧 그것은 옛한글 등도 포함하여 새로운 자모를 등장시키고, 이의 배열순서를 정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한글 자모의 배열순서는 우선 전산기 부호계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특히 ISO(국제표준기구)에 공동으로 제출할 안을 합의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잠정적인 합의 아래에서 1996년 8월에 개최되었던 제3차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자모순을 제시하여 북쪽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선결 과제가 되었다. 곧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상적인 자모 배열 순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것을 북쪽 학자나 관계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곧 1996년에 있었던 남북 학술 교류 3차 회합을 성과있게 개최하고, 우리 주도 아래 가장 이상적인 자모순을 바탕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모순 배열순서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였다.

그 결과로 1996년 8월에 개최되었던 제3차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공동안을 '우리 글자 배열순서 공동안'을 만드는 데에 성공하였다.

9. 한글 자모 배열순서의 규범과 관행

자모순 배열순서에 대한 통일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우리 동포들이 어문생활에서 한글 자모의 배열순서를 어떻게 규범화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가와, 아울러 남한의 한글코드와 북한의 한글코드(북한은 조선글 코드라고 한다), 그리고 역시 중국의 한글코드가 어떠한가를 조사하여야 했다.

다 아는 바이지만, 현재 남과 북 그리고 중국에서 규범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리글 자모와 그 배열순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남한

(1) 현대글자

근거 : 한글맞춤법 제4항 [붙임 2]

①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ㄹ ㄴ ㄷ ㅌ ㄹ ㄴ ㅁ ㅂ ㅅ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②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ㅠ ㅡ ㅜ ㅠ ㅡ ㅜ ㅠ ㅡ ㅜ ㅠ ㅡ ㅜ ㅠ ㅡ

③ 받침자모

ㄱ ㅋ ㆁ ㄷ ㅌ ㄹ ㄴ ㅁ ㅂ ㅅ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2) 옛글자

근거 : 1992년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UCS 및 UNICODE에 제출할 '자모 선정 및 배열'에 관한 회의에서 결정한 원칙 1)

(3) 결과 : KS C 5700

① 초성 (90자)

현대글자(19자)

ㄱ ㅋ ㄴ ㄷ ㄹ 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옛글자(71자)

ㄴ ㄷ ㄹ ㄲ ㄴ ㄷ ㄹ 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ㅈ ㅊ ㅋ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② 중성(66자)

현대글자(21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옛글자(45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③ 종성(82자)

현대글자(27자)

ㄱ ㅋ ㄴ ㄷ ㄹ 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옛글자(55자)

ㄱ ㅋ ㄴ ㄷ ㄹ 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ㅋ ㄴ ㄷ ㄹ 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2) 북한

(1) 현대글자

근거 : 조선말규범집(1988) 맞춤법

① 자음 (19자)

ㄱ ㅋ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ㅋ ㄴ ㄷ ㅅ ㅈ

② 모음 (21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1) ① 합용병서는 통속음 기준과 자형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자형 기준으로 배열한다.
- ② 각자병서는 합용병서와 섞어서 배열한다.
- ③ 순경음은 해당 자모 줄의 다음에 배열한다.
- ④ 'ㅅ'은 순경음에 준해 처리한다.
- ⑤ '·'는 모음 줄의 끝에 배열한다. 그리고 'ㅣ'는 '·'의 뒤에 배열한다.
- ⑥ 'ㅎ'은 'ㅎ'의 뒤에 배열한다.

③ 받침 자모(27자)

ㄱ ㄴ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ㅈ ㅊ ㅋ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2) 옛글자

① 자음 (36자)

ㄴ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ㅈ ㅊ ㅋ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② 모음 (2자 외 미상)

· ㅏ

(3) 중국

(1) 현대글자

근거 : 조선말규범집(1985)

① 자음 (19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ㅃ ㅄ ㅅ ㅆ ㅈ ㅊ ㅋ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② 모음 (21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③ 받침(27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ㅃ ㅄ ㅅ ㅆ ㅈ ㅊ ㅋ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2) 옛글자

근거 : 정보교환용 조선문코드계(GB12052-1989)

① 초성(36자)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② 중성(37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이는 글자꼴(즉) 중에서 겹치는 것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16자가 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③ 종성(26자)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서 규범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모의 수와 그 배열순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① 자모수

현대글자는 그 자모의 수가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모두 동일하나 옛글자의 수에는 차이가 있다.

② 현대글자의 기본자모 배열순서

현대글자의 기본자모(이른바 홀자모)의 배열순서는 모음은 모두 동일하고, 자음에서는 초성의 'ㅇ'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③ 홀자모와 겹자모의 통합 배열순서

남한에서는 초성이나 중성, 그리고 중성 모두 홀자모와 겹자모를 통합하여 배열하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과 중국에서는 홀자모와 겹자모를 분리하여, 먼저 홀자모를 배열하고 그 뒤에 겹자모를 배열한다.

④ 겹자음의 배열순서

겹자음의 배열순서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각각 차이가 있다. 특히 중성의 겹자음에서 남한은 각자병서(ㄱㅅ)와 합용병서(ㄱㅅ 나 나ㄹ ㄹㄹ ㄹㄹ ㄹㄹ ㄹㄹ ㄹㄹ ㄹㄹ)를 통합배열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분리배열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통합하여 배열하고 있다. 즉 남한은 각자병서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그 홀자모의 바로 뒤에 배열하고, 북한은 합용병서의 배열이 끝난 뒤에 각자병서를 배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홀자모의 배열이 끝난 뒤에 각자병서와 합용병서를 통합배열하고 있다.

⑤ 겹모음의 배열순서

겹모음 11자는 남한에서는 물론 홀모음과 통합배열하고 있으면서도, 겹모음 자체로서는 자형 중심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과 중국에서는 홀모음과 분리배열하여 홀모음 배열이 끝난 뒤에 배열하면서, 겹모음 자체도 자형 중심이 아닌 음가 중심으로 배열하고 있다. 그리하여 겹모음만의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져 온다.

남한 : ㅈ ㅊ ㅋ ㆁ ㄷ ㄴ ㄹ ㄱ ㆁ ㄱ ㆁ

북한, 중국 : ㅈ ㅊ ㅋ ㆁ ㄷ ㄴ ㄹ ㄱ ㆁ ㄱ ㆁ

⑥ 옛글자

옛글자에 대한 것은 남한만이 대체로 정밀한 검토를 한 반면, 북한과 중국은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서 비교가 거의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옛글자의 숫자에서부터 그 목록에 차이가 심하였다.

⑦ 그러나 이러한 규범화된 자모수와 자모의 배열순서는 부분적 상사성과 부분적 상이성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사성이 더 많다.

10. 남한, 북한, 중국이 제시한 자모 배열순서 공동안

1996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연변시 빈관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과학기술협회가 주최하고 남한의 한국국어정보학회와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 후원하는 제3회 제3회 코리아안 전산처리 국제학술회의(3rd ICCL 96)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회의는 남한과 북한 및 세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의 한글 실현 방법을 통일시키기 위해 1994년부터 금년까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사람들이 세 번째로 모인 자리였다. 그러기에 중국, 남한, 북한, 일본, 미국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자들 약 120명이 참가하였다. 이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관심사는 이 문제의 관건을 쥐고 있다는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1) 자모배열순의 공동안을 만든 소회의와 분과회의

자모배열순서의 통일안을 만들기 위하여 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소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남한측의 참가자 중국어학자들만이 모여 몇 가지 논의를 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제안할 통일안과 북한과 중국이 제시한 통일안을 설명하고, 앞으로 타결될 통일안의 윤곽을 제시하였다. 통일안의 윤곽은 이미 중국의 최희수 교수가 남과 북의 대표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남한의 학자들은 그 통일될 안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소위원회 참석자들에게 일임하였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ㅈ, ㅊ, ㅋ, ㆁ, ㄷ, ㄱ, ㆁ, ㄷ, ㄱ, ㆁ

2) 옛글자 배열순은 다음과 같다.

자음:

ㅂ, ㅅ, ㅆ, ㅈ, ㅊ, ㅋ, ㆁ, ㄷ, ㄱ, ㆁ, ㄷ, ㄱ, ㆁ

모음: (아래 아)

3) 옛글자배열순은 현대글자배열순에 따르면서 일부는 자형의 유사성에 따라 배열한다. (부록2를 참조)

4) 각기 이 순서에 따르는 입출력변환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나. 앞으로의 연구과제

이두자와 구결자는 앞으로 연구한다.

설명

① 본 합의문의 우리 글자 배열순서는 컴퓨터처리부호계의 사용에 국한한다.

② 옛글자는 훈민정음 28자와 그에 기초하여 조합된 글자 가운데에서 현대맞춤법에 쓰이지 않는 글자를 가리킨다.

(2) 공동안의 특징

이 공동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음

① 북한에서 'ㅇ'을 'ㅅ' 뒤로 양보하였다.

② 남한의 배열 순서인 ㄱ, ㅋ, ㆁ, ㄷ, ㄱ, ㆁ, ㄷ, ㄱ, ㆁ, ㄷ, ㄱ, ㆁ의 자모를 포함시켰다.

③ ㄱ, ㅋ, ㆁ, ㄷ, ㄱ, ㆁ을 중국과 북한에 양보하여 맨 뒤에 배열하였다.

④ 이 통일안은 현재 남한, 북한, 중국의 현행 배열 순서와 차이가 있다.

2. 모음

① 기본모음과 겹모음을 구분하여 배열하였다.

② 기본모음의 배열순서는 3국이 동일하다.

③ 겹모음의 배열순서는 한국의 배열순서와 동일하다.

3. 옛글자

① 남한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정한 원칙이 있고 북한은 특정한 배열순서를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배열 순서가 있으나 그 배열에 일정한 원칙이 없다. 따라서 이것을 정밀하게 조사 검토한 남한의 홍윤표에게 일임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남한의 안을 택하였다.

(3) 한글 자모순 통일안의 의의

컴퓨터 부호계의 자모순 배열순서를 통일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의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① 컴퓨터상에서 전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코드를 통일시키는 단초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코드가 서로 달라서 이를 통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 한글코드의 통일은 바로 자모의 배열순서를 통일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번의 자모순 배열순서의 통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② 앞으로 남과 북, 그리고 중국에서 입력한 모든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각각 입력된 자료들은 코드 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서로의 입력자료를 교환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

③ 컴퓨터 통신상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 아직 그러한 전례가 없으나,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교환은 물론, 직접 컴퓨터에서 한글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④ 컴퓨터 부호계의 한글 자모순 배열순서를 통일시켰기 때문에, 남북 및 중국의 어문규범에서 나타나는 한글 자모 배열순서의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2. 앞으로의 과제

우리는 많은 노력 끝에 남과 북의 신뢰를 얻는데 많은 공헌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글 자모 배열 순서를 통일하는 일은 당국자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당국자들의 회의는 대부분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접촉은 아직은 요원한 느낌이다. 그러나 남한의 국립국어연구원과 북한의 사회과학원의 만남도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금년도에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에는 이 자모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 하면 북에서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의제 중에 우리글(훈민정음이라고 칭해 왔다)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그 제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즉 창제 및 기념날자, 현대공동명칭, 규범 변천과 현황, 정보처리에서 부호화, 전자법과 전사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